

‘이탈리아 No.1 스파클링 와인, 최초의 스파클링 생산자’

간치아 프로세코

Gancia Prosecco



지역	이탈리아 > 베네토 > 프로세코		
포도품종	글레라 100%		
알코올	11.5%	용량	750ml
등급	DOC	시음 적정 온도	6-8℃
테이스팅 노트	연한 그린 뉘앙스의 밝고 투명한 옐로우 컬러에 신선한 오렌지, 레몬 등의 과일과 고소한 구운 빵 등의 느낌이 좋은 하모니를 이룬다.		



제품설명



이태리 북동부, 베네토와 프리울리 지역에 위치한 프로세코 DOC에서 생산된 스파클링와인 프로세코는 특유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으로 현재 전세계 스파클링 와인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와인이다. 프로세코 DOC라고 규정된 지역에서 자란 프로세코 품종으로 만든 스파클링만을 프로세코라 부를 수 있다.

*와인 빈티지에 따라 알코올 도수는 소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



1850년 설립 이후,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산업의 초석을 닦아 온 와이너리로서 전통이 빛나는 뛰어난 퀄리티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간치아의 지하 셀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스파클링 와인과 아페라티프 와인의 세계적인 거장이다.

또한, 1870년 이탈리아의 왕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가 간치아를 공식 와인 공급처로 지정한 것을 필두로 교황 피오 11세,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 등 유럽의 로열패밀리들이 마신 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5년에는 모엣상등을 소유한 LVMH의 장녀 델핀 아르노와 간치아의 알렌산드로 간치아가 결혼하면서 프랑스와 이태리의 No.1 스파클링 와인 제국의 결합으로 주목 받았다.

오늘날 간치아는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내수 시장에서 No.1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일본,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세계 곳곳에서 No.1 아스띠 와인으로 통한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